「柳五乘記」의 서사적 특징 연구

- 愛情傳奇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한의숭*

「차 례」

1. 머리말
2. 「柳五乘記」의 서사적 특징
 1) '고독'과 '충동성'을 지닌 남성주인공과 '적극적'인 여성주인공의 결연
 2) 신분문제의 표출과 '결핍-충족' 구조의 사용
 3) 장면이나 배경 묘사에 있어 화려한 문체 지향
3. 맺음말

【국문초록】

「柳五乘記」는 『奇說』이란 야담계 한문단편소설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창작연대는 19세기로 추정된다. 『기설』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간단히 연구된 바 있으나 수록된 6편에 대한 개별 작품론은 좀 더 정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는 「류오승기」의 서사적 특징에 관해 주목하였다.

「류오승기」가 수록된 『기설』의 경우 일단 전반적인 작품 성향이 야담계열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설』에 수록된 작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품 가운데 「박천연전」과 「산령암기」가 『東野彙輯』이나 『靑邱野談』에 비슷한 유화가 실려 있는 것을 통해서 상호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류오승기」의 경우 또한 야담과의 친연성이 확인되며, 이 점은 『동패낙송』과 『동야휘집』 및 『청구야담』에 유사한 화소가 실려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류오승기」의 경우 야담이 소설로 전변되는 사례의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설화 되는 과정에서 애정전기의 서사방식을 적극 활용한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그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독성'과 '충동성'을 가진 남주인공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여주인공을 통해 애정전기적 인물형상을 서술함으로써 인물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상층 남성과 하층 여성의 결연이라는 신분문제를 저간에 설정하고 이를 통해 남녀주인공 상호간에 야기되는 '결핍'과 '충족'을 서사 구조로 활용하여 서술함으로써 소설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작품 내에서 특정 장면이나 상황, 배경을 묘사하는데 있어 애정전기에서 사용되는 전고나 용사 등을 사용함으로써 야담과 구별되는 소설로의 전변 양상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류오승기」는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을 적극 활용하여 작품을 서술해 나가고 있으며, 작품 전체를 관류하는 서사의 구도에 있어서는 남녀주인공이 개별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은 남녀주인공의 결연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류오승기」는 화소의 원천이 전대 야담집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함으로써 야담에서 소설로 전변되었으며 이때, 중요한 서사방식으로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애정전기가 19세기 야담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친 구체적 양

상을 「류오승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柳五乘記」, 愛情傳奇, 野談, 19세기, 서사, 『東稗洛誦』, 『東野彙輯』

1. 머리말

「柳五乘記」는 『奇說』이란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기설』에는 「鄭氏奇遇記」, 「柳五乘記」, 「朴秀才傳」, 「太白山狐菴記」, 「山靈菴記」, 「朴天然傳」 등 6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기설』은 6작품 밖에 수록되지 않는 관계로 기존의 야담집에 비해 분량이 매우 소략하며 텍스트에 수록된 작품의 성향 역시 야담으로만 한정하기 어려운 문체양식의 혼효현상이 일정부분 보이기 때문에 장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단 『기설』에 수록된 작품의 전반적인 성향은 야담계 한문단편소설에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별 작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담과 소설의 언저리에 어정쩡하게 걸쳐져 있는 인상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야담으로 보기엔 18-9세기 야담집 소재 야담들에 비해 야담적 필치가 다소 떨어져 보이고, 소설로 보기엔 동시기 여타 소설과 비교해 봤을 때 소설적 성향이 다소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애매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선행연구에서도 작품집의 장르귀속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컨대 장시광[1]의 경우 『기설』을 한문단편소설집으로 규정한 반면, 양은

1) 장시광, 「『奇說』해제」, 『규장각소장어문학자료 - 문학편 해설 I 』, 태학사, 2001.

옥[2]의 경우 야담계 한문단편소설집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작품집으로서의 『기설』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할 경우, 수록된 6작품에 대한 정밀한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집의 성향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6개의 개별 작품을 일별해보면 일단 野談과의 친연성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설』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기설』에 대한 간단한 해제[3]나, 『기설』의 인물형상, 서술방식 및 서술의식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4] 등 작품집으로서 『기설』에 집중하거나, 「정씨기우기」에 대한 해제 및 번역[5] 및 『기설』에 수록된 개별 작품에 대한 해제와 역주 작업[6] 등 수록된 개별 작품에 대한 해제작업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선행 연구를 통해 『기설』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에 대한 파악이 일정부분 이뤄지긴 했으나 개별 작품의 성격, 동일 유화의 전변양상에 대한 정밀한 비교검토 등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설』에 수록된 6작품 가운데 「류오승기」에 주목해 작품의 서사적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일단 6작품 가운데 「류오승기」의 소설적 성취가 단연 두드러지며, 특히 서사방식 상에 있어서 애정전기와의 친연성이 강하게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19세기 한문단편서사양

---

2) 양은옥, 「『奇說』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 장시광, 위의 책.

4) 양은옥, 위의 논문.

5) 박희병 · 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에서 「정생기우기」가 번역된 바 있다.

6) 정병호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정병호, 「漢文小說 「柳五乘記」 解題 및 譯註」, 『영남학』 1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漢文小說 「山靈菴記」 國譯」, 『국학연구론총』 9, 택민국학연구원, 2012; 「漢文小說 「太白山狐菴記」 國譯 및 原文」, 『국학연구론총』 10, 택민국학연구원, 2012 참조.

식과 애정전기의 관련양상을 살펴보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류오승기」를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柳五乘記」의 서사적 특징

애정전기는 주지하듯이 나말여초의 「崔致遠」을 필두로 15세기의 『金鰲新話』와 17세기의 「周生傳」을 거쳐 19세기의 「布衣交集」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전통이 깊은 장르이다. 그렇다보니 인접 고전서사 장르에 영향을 끼친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 『天倪錄』 소재 「掃雪因窺玉簫仙」을 통해 그 영향관계의 편린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곧 야담 텍스트에 애정전기적 서사기법이 틈입하여 서사화 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접서사장르간의 혼효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본고의 텍스트인 「류오승기」 또한 이러한 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양상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고독'과 '충동성'을 지닌 남성주인공과 '적극적'인 여성주인공의 결연

「류오승기」는 일단 남주인공인 류오승과 여주인공인 韓氏 사이의 결연이 성취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사화한 작품으로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인물결연양상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기설』에 수록된 다른 작품, 「산령암기」나 「박천연전」이 『東野彙輯』과 『靑邱野談』에서 유사한 화소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기존 야담집 소재 작품과의 상호 비교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류오승기」 역시 기존 야담집 소재 화소와의 비교가 필수적인데, 관련된 작품으로 『東稗洛誦』의 제17화인 「馬」[7]와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놓여 있음이 확인된다. 「馬」는 문헌전승의 과정을 통해 19세기 야담집인 『東野彙輯』에 「假竊馬轉禍媒榮」[8]이란 작품으로 전재되고 『靑邱野談』에서는 「信卜說 湖儒探香」이란 작품으로 전재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문제는 야담집 소재 화소와 「류오승기」와의 상호 연관의 거리이다. 작품집의 선후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화소의 유전은 『동패낙송』에서 『기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동패낙송』→『청구야담』, 『동야휘집』의 형태로 이어지는 계열과 『동패낙송』→『기설』로 이어지는 계열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동패낙송』→『청구야담』, 『동야휘집』의 형태로 이어지는 계열은 문헌전승을 통해 전재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 이들 상호간의 화소의 변모 양상의 층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패낙송』→『기설』로 이어지는 경우는 야담에서 소설로의 이행화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때 소설로의 이행화 양상에 있어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이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전기소설의 서사문법[9]은 '고독감', '내면성', '소극성', '문예취향'으로 대표되는데, 이들 요소는 19세기에 등장하는 「포의교집」에 이르기까지 전기소설의 장르문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기소설의 미적 특질을 논하는데 중요한 척도로 작용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전기소설의 서사문법이 비단 전기소설 계열의 작품뿐만 아니라, 野談, 傳, 記事 등 인접 한문서사장르나 영웅군담

---

7) 「馬」, 『東稗洛誦』, 『栖碧外史海外蒐佚本』 26, 아세아문화사, 1990, p. 31.

8) 「假竊馬轉禍媒榮」, 원본 『東野彙輯』 卷之五, 보고사, 1992, pp. 475-482.

9) 전기소설의 서사문법에 관해서는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pp. 33-55 참조.

류 고소설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파급된 점이라 하겠다. 인접장르 간에 상호 교섭양상이 빈번하다 보니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전기소설의 서사문법은 특유의 미감을 상실한 체 일종의 패턴화 된 양상을 보일 정도로 과잉된 측면이 존재했다. 「류오승기」는 이러한 전기소설의 서사문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형태로 보이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인물 형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남녀주인공으로 대변되는 인물형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 서사의 추이를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 창원 류생은 이름이 오승이고, 본래 사족이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가난하여 나이 서른에 아직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고 고향에서 궁벽하게 살았다. **나아감에 의탁할 만한 知己도 없었고** 거처함에 축적해 둔 재산도 없어서, 베옷과 나물밥으로 분수를 지킬 따름이었다.[10]

위의 예문은 「류오승기」의 첫 서두 부분이다. 남주인공인 류오승에 대한 간단한 인정기술로 시작되고 있다. 이 점은 "영남의 한 큰 선비"[11]라고 기술되는 『동패낙송』의 경우와 비교가 되는데, 傳 양식에서 사용되는 인정기술방식과 함께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이 작품의 서두를 시작하는 방식은 「류오승기」뿐만 아니라, 『기설』에 수록된 6작품에서 공히 구사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

10) 「류오승기」 "昌原柳生, 名五乘, 本士族者. 父母旣沒, 家事零替, 行年三十, 未能立身揚名, 窮居鄕. 爲出无知己之投, 處无畜積之守, 布衣蔬食, 守分已而.", p. 249. 원문 및 해석은 정병호 교감본을 따르며 필요에 따라 필자가 가감하였음을 밝힌다. 정병호, 「漢文小說 「柳五乘記」解題 및 譯註」, 『영남학』 1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참조.

11) 「馬」, 『東稗洛誦』, 『栖碧外史海外蒐佚本』 26, 아세아문화사, 1990, p. 31, "嶺南有一巨擘".

그런데 양자 간의 작품 서두를 비교해 보면 「류오승기」와 『동패낙송』의 「馬」 사이에는 상호 지향점을 달리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야담인 「馬」와는 달리 「류오승기」의 지향점은 '小說'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서사방식이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밑줄 친 부분을 통해 확인되듯이 류오승은 '早失父母'하여 '知己'도 없는 '고독'한 존재로 등장한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이 없이 오직 혼자만 존재하는 지극히 외로운 인간으로 설정되어 있다.[12] 존재의 고독감이 저변에 깔려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처지에 놓인 인물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자신만의 독점적인 것을 취하려는 욕망이 더더욱 간절해 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모험도 감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류오승은 다음과 같은 '충동적'인 행동을 감행함으로써 욕망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미인이 한 명의 종으로 하여금 앞에서 인도하게 하고 그 뒤를 따라 굽이굽이 서쪽으로 옮겨 갔다. 오승은 정신이 흔들려 스스로 억제할 수 없어 곧 그녀를 따라 갔다.[13]

위의 대목은 류오승이 한 씨와 조우하게 되는 장면으로 한씨에게 첫눈에 반한 나머지 오승은 그녀가 이동하자 정신없이 그녀를

---

12) 작품 내에서 류오승의 경우 아내가 있고 오승이 과거를 보러 가는 초기 비용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작품 내에서 존재감이 비중 있게 그려지는 듯 했으나 이내 작품 내에서 역할은 그것으로 마감되고 이후 존재는 사라지고 만다. 이는 서사방식의 미숙함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의 존재감 상실로 인해 오승은 결과적으로 고독한 존재로 남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3) 「류오승기」 "美人使一丫鬟, 前導之, 隨其後, 迤邐投西而去. 生神魂飄蕩, 不能自仰, 乃尾之而去", p. 251.

따라가는 행동을 취한다. 이러한 '충동적'인 모습은 이후 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전이되는데 예를 들어 한 씨의 시댁까지 쫓아간 뒤 그녀의 시부모에게 過客인 양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고, 시부모가 잠들기를 기다린 뒤 밖으로 나와 사방을 둘러보는데 이때 사방이 모두 막혀있는 갑갑한 상황에서 마구간에 水口를 확인하고는 "나의 길흉이 오늘 밤에 달려 있는데 일이 어렵다고 하여 어찌 피하겠는가?"[14]라고 탄식하면서 본인의 충동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오승이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등불을 끄고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다."[15]라고 서술되는 장면을 통해 류오승의 '충동적' 행동이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독감'과 '충동성'을 지닌 남주인공 류오승에 상대가 되는 여주인공 한 씨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 씨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 천한 제가 절개를 지킨들, 끝내는 아마도 이익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이윽고 절개를 고치고자 하니 화려한 옷을 입고 베개를 나란히 해도 될런지요?[16]

위의 예문은 한 씨가 본인의 방에 잠입하여 본인을 친압하려한 오승에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한 뒤 오히려 오승을 통해 본인의 신세를 바꿔보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드러난 부분이다. '改節'을 적극적으로 감행하는 한 씨의 형상에서 전대 애정전기의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의 형상이 일정부분 오버랩되기도 한다. 특히 이 대목은

---

14) 「류오승기」, "吾之吉凶, 徒在於今宵, 難事豈可避也?", p. 251.

15) 「류오승기」, "五乘開戶因入, 滅其灯火, 屛息而臥矣.", p. 252.

16) 「류오승기」, "此賤人守節, 終恐無益. 是以, 不念礼義, 旣而改節, 華麗之服, 聯枕可也.", p. 252.

「馬」의 부분과 서술양상을 달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馬」에서는 "이건 하늘이 시킨 일이군요, 하늘을 어길 수 있나요."[17]라는 여자의 발화를 통해 남녀 간의 결연을 숙명론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반면, 「류오승기」에서는 한 씨가 본인의 서글픈 신세를 주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주체적 성향을 강화하여 서술하고 있어 차이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합격 여부를 이 종으로 하여금 자주 기별하게 하여 주선하는 방법으로 삼으십시오. 또한 지금 길을 떠나시거든 장차 저의 본가를 방문하십시오."[18]라고 구체적으로 오승의 향후 행동을 지시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여성주인공의 적극성은 여실히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류오승기」의 남녀주인공의 형상은 애정전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전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이 작품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인물형상 뿐만 아니라 서사 구도의 측면에서도 애정전기와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 신분문제의 표출과 '결핍-충족'구조의 사용

「류오승기」는 앞선 논의를 통해 『동패낙송』 소재 「馬」라는 작품을 문헌전승의 과정을 통해 『기설』에 수록되면서 야담계 한문단편소설로 변모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동패낙송』에 실린 「馬」의 경우 이야기의 핵심 소재는 '말'이다. 여주인공에게 있어 '말'은 남편이 평소 아끼던 것으로 일찍 남편과 사별한 뒤에는 아내가 남편

17) 「馬」, 『東稗洛誦』, 『栖碧外史海外蒐佚本』 26, 아세아문화사, 1990, p. 33, "此天也, 豈違天乎".

18) 「류오승기」 "登科與否, 使此奴頻數通奇, 以爲周旋之道也. 且今行, 將訪於妾之本家.", p. 253.

의 대용으로 여기던 것이었기에, 이 '말'이 서사 전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류오승기」에서는 이러한 '말'의 역할은 삭제되다 시피하고 「馬」에서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던 '신분문제'가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실 신분문제는 소설 가운데 특히 애정전기에서 남녀주인공의 갈등조성에 핵심적 기제로 작동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남녀주인공의 신분문제는 17세기를 기점으로 전·후반의 양상이 전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데 나말여초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남녀주인공의 신분은 상층 사대부가의 여성과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그러나 재주는 출중한 남성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초기 애정전기에서 남성주인공의 인물 형상에 대한 해석은 여성주인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남성주인공이 신분상승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문인지식인층의 원망'으로 이해되곤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17세기를 기점으로 남녀주인공의 신분문제가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바뀌게 된다. 즉 상층 사대부가의 남성주인공과 중인층 이하의 여성주인공의 결합으로 신분 간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19] 이 점은 17세기 이후 애정전기의 주류적 위치를 계승한 「憑虛子訪花錄」, 「沈生傳」, 「丁生傳」, 「포의교집」 등에서 공히 확인되는 현상이다.

「빙허자방화록」의 여성주인공인 박매영의 신분은 중인이며, 「심생전」의 여성주인공인 궐녀는 호조의 계사인 부친의 딸로 역시 중인이다. 뿐만 아니라 「정생전」의 여성주인공인 삼청동 낭자는 이조서리의 딸로 중인이며, 「포의교집」의 여성주인공인 '양파'는 남

19) 조선후기 애정전기소설의 인물변모 및 여성주인공의 형상에 대해서는 임성희, 「18세기 애정전기소설의 여성주인공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및 전선희, 「조선후기 애정전기소설의 인물변모양상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참조.

녕위궁의 시비로 있던 하층여성이다.

이렇듯 여성주인공의 신분이 중인 이하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반면에 남성주인공은 사대부가의 남성으로 부상하면서 작품 속의 여성주인공은 본인의 신분상승을 성취하기 위해 남성주인공[20]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으로 서사가 전변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남녀주인공의 신분 역전현상은 17세기 이후 애정전기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안이면서 중요한 서사기제로 작동한다. 「류오승기」의 경우 야담을 소설로 변개하면서 신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서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점이 어떻게 형상화 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 창원 류생은 이름이 오승이고, **본래 사족**이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가난하여 **나이 서른에 아직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고** 고향에서 궁벽하게 살았다. 나아감에 의탁할 만한 지기도 없었고 **거처함에 축적해 둔 재산도 없어서**, 베옷과 나물밥으로 분수를 지킬 따름이었다.[21]

앞서 인용된 「류오승기」의 첫 서두 부분으로 남성주인공인 류오승에 대한 간단한 신원이 기술된 대목이다. 위의 밑줄 친 부분에 집중해 보면 류오승은 신분계급이 士族으로 양반 사대부가에 속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신분만 그럴 뿐 그에 걸맞는

---

20) 이때 남성주인공은 전대의 남성주인공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초기 소설에 남주인공이 재주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신분문제로 인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우함이 강했다면, 후기의 남성주인공은 사대부라는 허울만 갖추고 있을 뿐 그에 걸맞는 능력은 그리 따라주지 않는 그런 인물로 존재한다.

21) 「류오승기」, “昌原柳生, 名五乘, 本士族者. 父母旣沒, 家事零替, 行年三十, 未能立身揚名, 窮居鄕. 爲出无知己之投, 處无畜積之守, 布衣蔬食, 守分已而.”, p. 249.

경제적 지위까지 보장받은 것은 아니었다. 나이 서른이 되도록 입신양명도 하지 못한 처량한 신세였고 또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으니 재산이 있을 수가 없는, 말 그대로 허울만 사대부일 뿐 실제는 몰락양반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신분'뿐이었다. 그 '신분'마저도 사실은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그는 일단 남부러워할 것 없는 '사족'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지에 놓인 오승에게 짝이 되는 여성주인공은 어떤 상황인지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려보자.

> **저는 장안의 갑부인 한만호의 여식입니다. 대대로 중인이었고 무남독녀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사랑해 주셨고 결혼을 할 때, 누만금의 재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 집과 종들은 모두 우리 집에서 보내준 것들입니다.[22]

위의 대목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성주인공인 한 씨는 본인의 육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장안 갑부의 무남독녀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요조숙녀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정작 그녀의 신분이 중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태생적인 신분적 한계를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평생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신분의 문제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겠지만 그녀는 '중인'이란 신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족된 존재였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진 신분의 문제가 남들이 보기엔 '옥에 티'와 같은 아주 작은 흠결일지라도 그녀에게는 인생의 전반에 걸쳐 가장

22) 「류오승기」, "妾則長安甲富, 韓万戶之女也. 世代中人, 而且無男獨女. 故甚所鍾愛, 成婚時, 分財於屢萬金, 今則家舍與奴婢, 盡是吾家之所來物也.", pp. 252-253.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류오승기」에 설정된 남녀주인공의 신분문제는 「馬」에 비해 서사전개에 있어 중요한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류오승기」의 서사방식은 비단 '신분문제'를 끌어들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신분문제'에서 상호 '결핍-충족'[23]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형태로 서술하는 점에서 야담에서 소설로의 변모양상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결핍-충족'의 양상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남주인공 류오승은 '사족'이라는 '신분'만이 충족되었을 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력'이나 '一家의 구성', '立身揚名' 등 모든 것이 결핍된 인물로 그려져 있었다. 이는 곧, 그에게 주어진 결핍이 전방위적인 결핍이나 다름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그는 결핍을 충족시키고픈 욕망이 항상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사족'이라는 자존심을 바탕으로 현실처지를 한번에 뒤엎을 수 있는 '출세'에의 욕망이 당연히 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실 '출세욕망'을 품을 수 있는 저변에는 '사족'이라는 '신분'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류오승의 '신분'이 이후에 새로운 사건을 야기하는 단초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신분'의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류오승은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科擧'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류오승이 그토록 꿈꿔오던 절호의 찬스가 눈앞에 펼쳐지는

---

23) 16세기 『기재기이』 소재 「하생기우전」을 통해 '결핍-충족'의 구조가 논의된 바 있다. 본고의 '결핍-충족'의 논의 틀은 여기서 끌어온 것임을 밝힌다. 이에 대해서는 최재우, 「「하생기우전」의 '결핍-충족' 구조와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참조.

순간이었다. 때문에 오승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응시하고자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이를 속시원히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길이 멀고 비용도 대기 어렵기"[24] 때문이었다. 즉, '과거'를 통해 '출세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경제'적 결핍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에게 놓인 '경제력'의 부재라는 결핍요소가 발목을 잡아끄는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과거'를 보러 갈지라도 합격한다는 보장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일면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것이고 따라서 류오승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무조건 살려야만 하는 것이었다. 나름 고민을 하던 오승은 고을의 이름난 점쟁이에게 묻는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내맡기는 선택을 대신한다.

그는 경제적 결핍과 확신할 수 없는 장래에 대한 답답함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에게서 점괘를 하나 받는데 나온 점괘의 결과는 '과거'에는 합격하나 '夭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류오승의 입장에선 '과거'에 합격한다는 결과야말로 모든 결핍을 한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으나 그로 인해 '요절'이라는 더 큰 결핍을 맞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형국이나 다름없었다. 어찌 보면 참 이렇게 기박한 운명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오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점쟁이에게 해결책을 간청하고 점쟁이는 아래와 같이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 과거 길을 떠나 장차 6,7백리를 가면 거의 경성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말이 좁은 길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이 달리는 대로 몸을 맡겨 10여리 쯤 가다보면 응당 계곡이

24) 「류오승기」, "道路旣遠, 所費爲難", p. 249.

> 있을 것이다. 계곡을 따라 몇 리 쯤 가면 언덕 위에 또한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을 것인데, 가운데 한 그루를 기어 올라가 언덕의 측면으로 내려다보면 한 미인이 완연히 있을 것이다. 그 여자와 통정한다면 과거에 급제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목숨을 길이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는 다른 계책이 없으니 어찌 쉽게 구할 수 있겠는가?[25]

애당초 류오승에게 결핍된 것은 '경제력'과 '입신양명'이었고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과거'를 보러가는 것이었는데, 결론은 엉뚱하게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으로 상황이 변질되고 말았다.[26] 문제의 본질이 경제적 무능과 입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전환된 것인데 상황의 심각성은 오히려 증폭된다는 점에서 향후 남주인공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때 류오승에게 주어진 '결핍-충족'의 문제에 있어 '충족'된 상황은 '결핍'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충족'에 다름 아니었으며, '결핍'을 해결하는 상황이 본인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오승은 인물형상의 변모를 보이게 된다. 이는 여주인공인 한 씨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녀의 '결핍'과 '충족'의 요소를 한번 주목해 보기로 하자.

---

25) 「류오승기」, "科行治發, 將往六七百里, 幾至京城, 忽然鬣者, 因入小路, 勿使復回, 信馬馱驅投, 並行十餘里, 則應有溪澗, 緣溪行數里許, 則岸上又有五柳, 中有一樹, 攀緣上之, 俯瞰於岸側, 則一美人宛然在矣. 能通厥女, 則非徒登科, 兼可永命矣. 其外无他策, 何乃易求乎?", p. 250.

26) 이 지점에서 서사의 진행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남녀주인공의 결연의 계기가 애정전기에서 주목되는 신분문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남주인공이 과거에는 급제하나 곧 죽을 것이라는 점장이의 점괘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남주인공이 본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점장이가 계시한 여주인공과의 만남을 이룬다는 점에서 서사적 지향이 애정전기와 달리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인'이라는 신분문제가 결핍된 인물로 등장한다. '신분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충족된 여성으로 류오승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단순결핍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한눈에 보일 정도니 사대부가의 남성과 결혼을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신분이 다른 계급간의 결혼이 금기시되고, 결혼을 할지라도 정실이 아닌 첩실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같은 중인계급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 보다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본인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결핍은 그리 단순하게 생각할 측면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결을 달리한다. 그녀에게 결핍된 문제는 단순히 신분문제 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아래 대목이 그 점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 저는 타고난 운명이 기박하여 나이 18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빈 규방에 홀로 거처하면서 가을 달, 봄 꽃에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꽃은 청산에 불타는 듯 하고 두견새가 애달피 울어대며, 녹음은 수양버들에 드리워져 있고, 꾀꼬리는 서로 벗을 부르는데 눈길은 깊숙한 방에 이르러 있으니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매일 밤마다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냇가에 나갔더니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 중 가운데 나무에 황룡이 걸려 있는데, 말갈기처럼 드리워져 있어 마치 황금 기둥과 같았습니다. 제가 크게 놀라서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니 그 용이 나무에서 내려와 장차 마구간의 하수구로 들어와 곧바로 방 안으로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놀라 깨니 이내 곧 꿈이었습니다. 매우 괴이하였던 까닭에 지금 그 일을 살펴보고자 하니 과연 낭군께서 그 나무에 올라 지금 갑자기 이르렀으니 그 꿈속의 일과 모두 합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낭군을 내려준 것이니 하나의 좋은 인연입니다. 또한 저는 비루함을 스스로 분명히 알았으나 헛되이 홍안의 박명한 몸이 한번 빈 방을 닫게 된다면 끝내 시들어 죽게 될 뿐입니다. 인생이 한번

> 죽고 나면 누가 다시 알아주겠습니까? 천한 제가 절개를 지킨들, 끝내는 아마도 이익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이윽고 절개를 고치고자 하니 화려한 옷을 입고 베개를 나란히 해도 될런지요?27)

위의 예문은 남주인공인 류오승이 몰래 한 씨의 규방에 침입하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방으로 들어오자 그녀를 강제로 범하려는 찰나에 그녀가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오승에게 토로하는 대목이다. 위의 장면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 바로 毁節을 스스로 결정하는 한 씨의 적극적인 행동이다. 원래 한 씨에게 결핍된 것은 '중인'이라는 신분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이 없는 사대부가의 집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앞서 "지금 사는 집과 종들을 친정에서 보내준 것"이라는 한 씨의 언술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한 씨에게 주어진 '신분결핍'이 결혼으로 인해 해결될 줄 알았으나 그녀의 나이 18세에 남편이 죽게 되자 '결핍'은 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니 오히려 '결핍'이 하나 더 늘었으니 바로 '남편의 부재'로 인한 '성적 결핍'28)

---

27) 「류오승기」, "妾賦命崎薄, 年玆十八喪夫. 獨居空閨, 秋月春花, 不勝定情, 方今, 火燃靑山, 杜鵑啼血, 陰濃垂楊, 黃鶯嗅友, 極目洞房, 神情何如? 是以, 每夜愁歎, 不能寐, 昨夜適出溪上, 則有黃龍掛於五柳中間之樹, 鬐鬚下垂, 如黃金柱也. 妾大駭, 趁入於家, 則其龍因而下樹, 將入於廐之水口, 直抵房中, 遂而驚覺, 則乃一夢也, 甚怪之. 是故, 今日將出以觀其事, 果然卽君上於其樹, 今遽至此, 與夢中事, 摠合是天以郎君見賜, 而一好因緣也. 且妾之鄙陋, 自知甚明然, 而空使紅顔薄命之軀, 一閉空房, 終成枯落已而. 人生一死之後, 誰復知之? 此賤人守節, 終恐無益. 是以, 不念礼義, 旣而改節, 華麗之服, 聯枕可也.", p. 252.

28) 선행연구에서는 「류오승기」의 인물형상을 몰락양반의 출세욕망과 중인여성의 성적욕구가 남녀주인공의 결연을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는 충분히 수긍할만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정병호, 전게 논문 참조. 하지만 '욕망'은 '결핍'이 깔려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본고는 이점을 고려하여 '결핍-충족'의 구조로 작품의 서사방식의 특징을 주목하

이 바로 그것이다.

그녀는 시집을 왔으나 일찍 남편을 여읜 이후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왔으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절하며 살아온 인물로 주변에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은 그녀를 '烈女'로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그녀의 내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였으며 오히려 그녀는 그런 시선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면 깊은 곳으로는 '情慾'을 더더욱 갈망하는 성적 결핍의 여성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류오승의 등장은 그녀에게 결핍된 '신분'과 '정욕'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구세주에 다름없었으며 그녀는 적극적인 결연을 맺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씨는 결국 오승과 雲雨之情을 맺고 오승에게 과거비용을 대준 다음 오승이 과거에 합격해 자신을 찾으러 오자 시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저의 일은 실로 떳떳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홀로 규방에 거처하며 달 밝은 밤 두견새의 울음소리와 봄바람에 나비가 날아드는 계절을 헛되이 보내 매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치욕을 참고 삶을 탐내어 감히 진효부의 열을 본받지는 못하나, 저 군자를 따라 길이 받들고자 합니다. 존인께서는 보배처럼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히 이별하고자 합니다.[29]

위의 장면은 류오승이 과거에 급제한 뒤 주인 집으로 찾아와 안채의 한 씨에게 안부를 전하고 이에 한 씨가 화려하게 화장을 하

였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애정전기의 인물형상과 맞닿아 있으며 「류오승기」의 인물형상에서 애정전기적 성향을 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방향과는 초점을 달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29) 「류오승기」, "妾之事也, 實以不義, 久居空閨, 夜月杜鵑之啼, 春風蝴蝶之時, 每傷虛度. 今則忍恥偸生, 不敢效陳孝婦之烈, 以從彼君子, 永奉衣巾, 尊人珍重, 從此永別矣.", p. 254.

고 나가 예배를 마친 뒤 시아버지가 저간의 사정을 괴이하게 여겨 묻자 한 씨가 대답하는 대목이다.[30] 한 씨의 발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씨의 행동은 본인이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결핍'을 '충족'시킴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삶을 찾고자 한 그녀의 강렬한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켜줄 대상을 만나게 되자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결국 성취를 이루어 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류오승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력' 결핍과 '출세의 욕망'을 한 씨의 도움으로 인해 '충족'시키게 되니 오승과 한 씨는 결국 서로에게 '결핍'된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존재로 상호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승과 한 씨의 인물형상에 있어 남녀주인공 상호간의 '결핍-충족'의 서사구조는 작품의 소설적 성취를 완성하는데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류오승기」의 서사방식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3) 장면이나 배경 묘사에 있어 화려한 문체 지향

앞서 인물형상과 구조의 문제를 통해 「류오승기」에 사용된 애정전기 서사문법의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류오승기」는 이 뿐만 아니라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이 틈입되어 영향을 끼친 요소로 문체의 측면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류오승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야담인 『동패낙송』의 화소가 문헌전재의 과정에서 변개가 이뤄지면서 소설로 변모된 작품에 해당된다. 때문에 야

30) 특히 이 장면에서 『동패낙송』은 여자가 친정에 기별을 해서 몸을 빼내어 시집을 버리고 본가로 아주 돌아온 다음 선비가 과거에 급제해서 내려오는 길에 4,5명의 사람을 보내어 모셔오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류오승기」와 상호간에 확연히 비교가 된다.

담과 소설 사이의 변모 양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변개의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가 애정전기의 서술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애정전기의 경우 문언문으로 기술되는데, 기술된 문체의 경우 典故나 用事를 빈번히 사용하며, 배경이나 장면 묘사에 있어 화려하고 전아한 문체를 통해 작품의 심미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체사용은 애정전기만의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주목할 수 있는데 「류오승기」에서도 장면이나 배경 묘사에 있어 애정전기 특유의 화려하고 섬세한 문체를 구사한 측면이 몇몇 대목에서 발견된다.

> 오승이 다시 집 뒤로 돌아가 비로소 초당에 이르렀다. 처마 앞에는 포도나무 시렁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복숭아와 자두나무 몇 그루를 심었는데, 가지마다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있었다. 문 앞에는 푸른 잣나무 울타리가 있고, 담 아래에는 석가산 세 봉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높이 솟아 빼어남을 다투는 듯하였다. 창 사이에 매화가 있었는데, 장막의 가지들이 서로 비추는 그림자가 마치 달빛에 그림 같았다. 이에 창문 사이로 엿보니 흰 병풍이 열리는데 그 아래에는 하얀 이불과 베개가 놓여있고 사람의 자취는 없이 적막하였으며 다만 베개 곁에 밝은 불빛만 있었다.[31]

위의 대목은 류오승이 한 씨를 만나고자 그녀의 초당으로 찾아들어가는 장면을 서술한 부분이다. 초당을 중심으로 주변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면 서술 기법은 한눈에 보기에도 전대 애정전기의 서술방식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

31) 「류오승기」, “五乘更轉舍後, 始至一艸堂, 則軒之前, 有葡萄架, 其辺植桃李數株, 滿枝香花, 門前徒一翠栢屛, 屛下設石假山三峯, 岌然競秀. 牕間有梅花, 帳枝之交影, 如盡於月色. 於是, 窺見於牕間, 則素屛將開, 其下設一素衾枕, 而寂無人跡, 但明燭於枕辺.”, p. 252.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애정전기의 경우 주인공 남녀 간의 결연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전고와 용사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그때 주로 사용되는 유명한 전고로 '무산신녀'의 고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전고와 용사의 사용을 「류오승기」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그 즐거움을 지극하게 하니 스스로 巫山과 洛浦의 만남도 여기서 더 나을 수 없다고 여겼다.[32]

위의 예문에서 사용된 巫山과 洛浦는 애정전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사로 무산은 초나라 襄王이 꿈에서 무산의 仙女와 만나 동침한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며, 낙포는 곧 洛水를 뜻하는데 伏羲氏의 딸 宓妃가 이곳에 빠져 신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들 고사는 나말여초의 「최치원」에서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수성지」, 「위생전」, 「운영전」에 이르기까지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작품에는 상투적으로 보일만큼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류오승기」에서도 류오승과 한 씨의 결연을 묘사한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결연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전고의 구사는 「류오승기」의 원천 화소인 『동패낙송』의 「馬」에서는 "그리하여 은근히 잠자리를 같이 했다"[33]라고 표현되어 있어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류오승기」는 문체의 측면에서도 애정전기의 전통을 충실히 활용한 흔적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류오승기」의 작품 변개양상에 끼친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의 영향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

32) 「류오승기」, "極其歡謔, 自以爲巫山洛浦之愚, 不足逾也.", p. 253.

33) 「馬」, 『東稗洛誦』, 『栖碧外史海外蒐佚本』 26, 아세아문화사, 1990, p. 34, "仍與穩同枕席".

3. 맺음말

지금까지 『기설』에 수록된 작품인 「류오승기」의 서사적 특징에 관해 살펴보았다. 「류오승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야담과의 친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화소가 『동패낙송』과 『동야휘집』 및 『청구야담』에 실려 있는 게 확인된다. 이때 영향을 받은 원 텍스트는 『동패낙송』이다. 하지만 「류오승기」의 경우 단순히 전대 야담을 문헌전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설로 변모한 예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설화 되는 과정에서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그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독성'과 '충동성'을 가진 남주인공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여주인공을 통해 애정전기적 인물형상을 서술함으로써 인물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상층 남성과 하층 여성의 결연이라는 신분문제를 저간에 설정하고 이를 통해 남녀주인공 상호간에 야기되는 '결핍'과 '충족'을 서사 구조로 구축하여 서술함으로써 소설적 성취를 높였다. 셋째, 작품 내에서 특정 장면이나 상황, 배경을 묘사하는데 있어 애정전기에서 구사되는 화려한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야담과 구별되는 소설적 성취를 일정부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류오승기」에 사용된 서사방식은 전대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서술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관류하는 서사의 구도는 남녀주인공이 개별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은 이 가운데 남녀주인공의 결연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류오승기」는 화소의 원천이 전대 야담집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함으로써 야담에서 소설로 전변되는 양상을 보

여주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애정전기가 19세기 야담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친 구체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일단 「류오승기」의 서사적 특징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머지 5작품에 대한 개별 작품론과 궁극적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작품집으로서의 『기설』에 대한 논의를 펼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기설』과 관련하여 좀 더 논의를 정밀하게 개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점을 몇몇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기설』의 작품집으로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살펴볼 부분 가운데 소설선집의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선집의 경우 비슷한 계열의 작품을 중심으로 합철된 형태가 보통인데 반해, 『기설』은 '奇'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선집한 양상을 보인다. 물론 『선이첩』[34]의 경우와 같이 '奇異'를 중심으로 선집한 작품집이 존재하므로 『기설』의 경우가 그리 독특한 양상이라 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기설』이 '기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고구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으로 『천예록』, 『鶴山閑言』으로 대표되는 '기이'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천명한 전대 야담집과의 영향관계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기이'에 대한 관심의 반영은 향후 『동패낙송』, 『청구야담』, 『동야휘집』 등의 야담집으로 그 편린이 계승되고 있으며, '기이'라는 것이 특정 시기의 관심사가 아니라 야담 및 소설 등 서사문학

34)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본으로 『어우야담』의 이본 가운데 하나이다. '기이'를 중심으로 한 3작품을 묶어서 만든 선집으로 필자에 의해 발굴되어 간단하게 소개된 바 있다. 특히 수록 작품 가운데 「선녀홍씨전」의 경우 기존 『어우야담』의 이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화수이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 「19세기 漢文中短篇小說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1, p. 11 참조.

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기이'의 양상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기설』에 수록된 6작품의 서두에 기술된 남주인공의 신분이 '몰락양반'이든 '재지사족'이든 중인 이하의 계급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즉, 남주인공의 신분 설정이 다분히 의도적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뿐만 아니라 이들 남주인공의 형상 또한 '실패'하거나 '몰락'을 경험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는 결국 편찬자의 의식 속에 남성/사대부의 기득권 계층에 대한 옹호가 일정부분 반영된 보수적 시각의 일단이 투영된 것임을 짐작케 하며, 이는 편찬연대로 추정되는 19세기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본다면『기설』의 편찬자의 의식 저변에는 당대 시대인식에 대한 고민을 일정부분 텍스트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며, 향후『기설』에 대한 보충 논의를 통해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해답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논의를 마친다.

참고문헌

『奇說』, 서울대 상백문고 소장본

노명흠,『東稗洛誦』,『栖碧外史海外蒐佚本』 26, 아세아문화사, 1990, pp. 31-35.

정명기 편, 원본『東野彙輯』, 보고사, 1992, pp. 475-482.

박희병,『韓國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pp. 33-55.

박희병・정길수 편역,『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pp. 159-164.

李佑成・林熒澤 譯編,『李朝漢文短篇集 上』, 一潮閣, 1973, pp. 242-248.

양은옥, 「『奇說』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 1-73.
임성희, 「18世紀 愛情傳奇小說의 女性主人公 硏究」,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1-61.
장시광, 「『奇說』해제」, 『규장각소장어문학자료-문학편 해설 I 』, 태학사, 2001, pp. 191-192.
전선희, 「朝鮮後期 愛情傳奇小說의 人物變貌樣相 硏究」,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 1-72.
정병호, 「漢文小說 「柳五乘記」解題 및 譯註」, 『嶺南學』 1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pp. 233-254.
_____, 「漢文小說 「山靈菴記」國譯」, 『국학연구론총』 9, 택민국학연구원, 2012, pp. 321-331.
_____, 「漢文小說 「太白山狐菴記」國譯 및 原文」, 『국학연구론총』 10, 택민국학연구원, 2012, pp. 299-310.
최재우, 「「하생기우전」의 '결핍-충족' 구조와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pp. 197-226.
한의숭, 「19세기 漢文中短篇小說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1, p. 11.
_____, 「「오후강전」의 서사방식과 인물 형상 연구」, 『민족문화논총』 51,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2, pp. 353-382.

A Study on Descriptive Feature of "Ryuohseunggi"

- A Focus on Relationship of Aiging-jeongi

Han, Eui-Soong

"ryu-o-syeung-ki" is one of the pieces carried on "ki-sul" which is called as Chinese short story version of a historical story and the release date has been expected to be sometime in 19 centuries. Characteristics of "ki-sul" have been briefly researched and reported before but individual analysis about 6 different pieces requires more close look insights. This paper has placed emphasis on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ryu-o-syeung-ki". In case of "ki-sul" where "ryu-o-syeung-ki" is carried on, the overall orientation of the piece is pursuing directivity of yadam. This tendency could be found out through the fact that "dong-ya-whii-jeep" or "cheong-goo-ya-dam" has similar stories like "bark-chyeun-youn-jeon" and "san-ryeung-am-ki" which are included in "ki-sul". "ryu-o-syeung-ki"'s relationship with yadam is confirmed and this similarity could be found between *dong-pae-nac-song* and *dong-ya-whii-jeep* as well as "cheong-goo-ya-dam". The important part to pay attention is the process of yadam being novelized and especially it utilized historical method of aiging-jeongi in the process of being novelized. Specific characteristics are like followings. First of all, it gives three dimensional effect to characters through describing of aiging-jeongi character formation with aggressive female character and impulsive and solitary male character. Secondly, it has uplifted the novelistic achievement by describing deficiency and satisfaction constructed with narrative structure through the social status gap between high class male character and low class female character setup in the story in advance. Thirdly, it is partially observed that colorful sentence style which has been commonly used in love romance is being pursued when it comes to describe specific scenes, situations or background story and it differentiates from yadam style. Likewise, the narrative

method of “ryu-o-syeung-ki” shows that it depicts the story through the adaptation of love romance narrative grammar. However, the narrative structure which flows throughout the whole storyline has been focused on the processes of achievements of individual characters’ personal desires and it needs the understanding of that narrative grammar of love romance is used to emphasize the relation between male character and female character. Therefore, even though “ryu-o-syeung-ki” has rooted on fore yadam text, it show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from yadam to novel by describing the story with the narrative method of love romance. At this point, it necessary to restate that the important narrative method is the narrative method of love romance and through this aiging-jeongi could give influence on 19 centuries yadam where “ryu-o-syeung-ki” shows the details discussed in this paper.

Key words: “ryu-o-syeung-ki”, 19thcentury, narrative grammar, love romance, Yadam, *dong-pae-nac-song*, *dong-ya-whii-jeep*

한의숭
소속: 경북대학교
주소: 경북 경산시 옥곡동 서부부영 3차 306동 305호
전화번호: 010-2523-8002
전자우편: lovehes@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3월 14일 투고하여
2013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30일 게재 확정함.